

▶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하편 ◀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 생활	
(2) 듣기·말하기 방식의 다양성 (5문제)-----	1쪽
5. 생각을 나누는 시간	
(1) 미완성의 걸작 (32문제)-----	7쪽
(2) 정책 토론의 원리와 방법 (32문제)-----	24쪽
(3) 설득하는 글 쓰기 (10문제)-----	40쪽
6. 나의 문학, 나의 꿈	
(1) ❶ 그 사람의 손을 보면 (41문제) -----	47쪽
(1) ❷ 엄마의 말뚝 2 (41문제) -----	63쪽
(2)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7문제) -----	88쪽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1) ❶ 향가와 시조 (68문제) -----	94쪽
(1) ❷ 관동별곡 (65문제)-----	119쪽
(2) 유자소전 (44문제)-----	149쪽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1) ❶ 국어의 변천 (70문제)-----	174쪽
(1) ❷ 한국어의 언어 활력 (18문제)-----	194쪽
(2) 담화 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23문제)-----	203쪽
9. '통'하는 국어 생활	
(1) 소유냐 존재냐 (15문제)-----	213쪽
(2) 협력하는 의사소통 (27문제)-----	223쪽
10. 잘 읽고 잘 쓰는 법	
(1) 매체 평가하며 읽기 (25문제)-----	236쪽
(2) 글쓰기의 정석 (10문제)-----	247쪽
◆빠른 전체 정답-----	253쪽
◆해설-----	256쪽

교재 버전: 2021.07.08

“단어의 변천” 문법 명칭

■ 동국정운식 한자를 표기(우리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방법)

世·宗·御·製·訓·民·正·音

1. 사잇소리, 관형격 조사 가능
 [나·랑 : 말·쓰·미 中·國·국·에 달·아 文·문·字·字·와
 이어 적기(말씀+에) 과(비교의 부사격 조사) 중국의 한자 공동격 조사

2. 모음 조화
 [로 서르 스·문·디 아·니 흘·씩] [이런 전·츠·로 어·린
 모음 조화 받침 'ㅈ'이 8중성법에 따라 'ㅊ'이 됨(기본형: 스·문·디) 어리석은(의미 이동)

3. 불쌍히, 가엾게(의미 이동) 원순 모음화 x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흥·배 이·셔·도 모·춤·내
 두음 법칙 x (니르다>이르다) 바+ | (주격 조사) 나+ | (주격 조사)

4. 어두 자음군 구개음화 x 사람에(의미 축소) 하다: 많다[多]
 [체 ·뵤·들 시·러 퍼·디 :문·흥·노·미 하·니·라 ·내 ·이
 어두 자음군 구개음화 x 사람에(의미 축소) 하다: 많다[多]

5. 모음 조화(쁘-+-음+에)
 [를 爲·왕·하·야 :어·옛·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字·를
 모음 조화(쁘-+-음+에) 원순 모음화 x]

6. 모음 조화(쁘-+-음+에)
 [밍·모·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너·겨 ·날·로 ·뽀·매 便·便
 수비 > 수이 > 쉬 모음 조화(쁘-+-음+에)]

안·한·크·하·고·져 흥·씩·르·미·니·라]
 '크'의 준말

제2장 이어 적기 뒤-+-르씩 [도타: 좋다(好) 조타: 깨끗하다(淨)]
 불·휘 기·픈·남·근·보·래·매·아·니·뽀·씩·꽃·도·로·여·름·하·느·니
 불휘+(주격 조사 생략) [木+은 된소리되기 이전] [어름: 열매[果] 너름: 여름[夏]]
 :식·미 기·픈·므·른·모·래·아·니 그·춤·씩 :내·히 아·러·바·르·래·가·느·니
 이어 적기 내+이 ▶ 조선 왕조의 무궁한 발전 기원

제125장 우+의(부사격 조사) 한강의 북쪽 즉 당시의 한양
 千世(천세) 우·희 마·리 定(정)·하·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하
 점차 천한 햇수라는 뜻으로, 왕조(王朝)의 운명을 이르는 말
 ·샤 卞年(복년)·이 :공·업·스·시·니
 주체 높임 주체 높임
 聖神(성신)·이 :나·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하·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성자신손(聖子神孫) 출중한 후대 왕 사녕 하나라 우왕을 가리킴. ↑상대 높임
 '남·금·하·아·르·쇼·셔 洛水(낙수)·에 山行(산행)·가·이·셔·하·나·빌·미·드·니·잇·가'
 남금+해(높임의 호격 조사) 중국 황해(黃海)의 한 지류 ▶ 후대 왕에 대한 권계
 ' : 태강왕의 고사를 일깨워 타산지석(他山之石)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중에서
 으로 삼을 것을 권함.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공헌함.

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음운·표기상의 차이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음 체계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세 계열이 확립되었음. 'ㄹ', 'ㄱ', 'ㅇ'와 같은 음운과 문자가 존재하였음. 'ㅼ', 'ㅽ', 'ㅿ' 등에서와 같이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음. 'ㄹ', 'ㄱ'이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었음.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잘 지켜졌음. 비분절 음운으로 성조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방점을 찍어 표기하였음. 이어 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었음. 음절 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발음되었으며, 받침에도 이 여덟 글자를 적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음 체계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존재함. 'ㄹ', 'ㄱ', 'ㅇ'와 같은 음운과 문자가 사라짐.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지 않음. 'ㄹ, ㄱ'가 단모음으로 발음됨. 모음 조화가 중세 국어에 비해 잘 지켜지지 않음. 비분절 음운으로 음의 길이가 존재함. 끊어 적기를 함. 음절 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발음되나, 표기를 할 때에는 형태소의 본 형태를 밝혀서 적음.

02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상의 차이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국어에 비해 고유어의 비중이 컸음. (예) ㄱ롬, ㄹ, 온, 즈믄 •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에서 온 외래어가 존재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국어에서 사용되던 고유어들 중 한자어로 대체된 것들이 많음. • 서구에서 온 외래어가 많음. • 중세 국어와 어휘의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 많음.

0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문법상의 차이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격 조사 '이'만 존재하였음. • 명사형 어미 '-음 /-음'이 사용되었으며, '-기'는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음. •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시- / -샤-'를 통해 실현되었음. • 객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습-/-줍-/-습-'을 통해 실현되었음. •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과 '-이-', '-잇-'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격 조사 '이/가', '께서' 등이 사용됨. •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사용됨. •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실현됨. • 객체 높임법은 '보다,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됨. •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며,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경우는 없음.

근대신문 텍스트 탐독 문제

1.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제 서문’을 읽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탐구해 보자.

世·宗宗御·영製·제訓·훈민정·정음품

나·랏·:말·쓰·미·中·동國·국·에·달·아·文·문·字·중·와·로·서·르·스·뎡·디·아·니·호·썩·어·이·런·전·초·로·어·린·百·백·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만·춤·내·제·:쁘·들·사·려·파·디·:몬·홍·노·미·하·나·라·내·:이·를·爲·왕·호·야·: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들·字·중·를·땡·:노·니·:사·람·:마·다·:하·예·:수·비·나·겨·:날·로·:뿌·메·便·便·安·안·의·호·고·저·홍·썩·르·:미·나·라

-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제 서문’

| 현대어 풀이 |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이 하야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1) 다음 중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운을 모두 찾아보자.

스뎡디	수비
-----	----

·, ㅃ

(2)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음운상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ㅃ	ㅍ
ㅆ	ㅅ

중세 국어에는 ‘年 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두 개 이상의 자음의 연속체인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지만, 현대 국어에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분절 음운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중세 국어	:말·숨	현대 국어	말·숨
-------	------	-------	-----

중세 국어에서는 비분절 음운으로 음의 높낮이(성조)가 있었고, 이를 방점으로 표시하였다.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음의 길이가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과거에 상성(낮았다높아지는 소리)이었던 ‘말’은 현대 국어에서는 장음으로 발음한다.

8-(1) 국어의 변천

(4)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상의 차이점을 탐구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말쌈미	말씀이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하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끊어 적기를 하고 있다.

(5) 다음에서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어리석은	어·린	나이가 적은
사람이	·노·미	놈[남자의 낮춤]이
불쌍하게, 가엾게	:어엿·비	예쁘게

(6)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의 차이점을 탐구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百·백姓·성·이	백성이
·배	바가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이’나 ‘ㅣ’ 등으로 실현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이’나 ‘-가’로 실현된다.

(7)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명사형 어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중세 국어	·뉘·메	차이점
현대 국어	씀에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옵 /-옵 ’이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으)ㄴ’이 사용된다.

2.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현대어 풀이를 참고하여 현대 국어와 어떻게 다른지 탐구해 보자.

제2장

불·휘 기·픈 남·곤 보·래·매 아니 :뵈·씩 꽃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갓·래 아니 그·츨·씩 :내·히 이·러 바·래·래 ·가·느·니

제125장

千世(천세) 우·회 미·리 定(정)·호·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호·샤 卜年(복년)·이 :조 :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나·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호·샤·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르쇼·셔 洛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빌 마·드·니잇·가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중에서

| 현대어 풀이 |

제2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제125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에 걸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開]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부지런하셔야 더욱 굳으시겠습니다.
임금이여, 아소서. 태강왕(泰康王)처럼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조상)만 믿으셨습니까?

8-(1) 국어의 변천

	‘용비어천가’	현대 국어
음운과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를 사용함.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을 사용하였음. ·이어 적기가 보편적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를 사용하지 않음. ·성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방점을 사용하지 않음. ·끊어 적기함.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다’가 ‘많다’는 뜻으로 사용됨. ·‘여름’이 ‘열매’라는 뜻으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다’는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뜻으로 사용됨. ·‘여름’은 ‘봄과 가을 사이. 낮이 길고 더운 계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됨.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가 사용됨.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잇-’이 사용됨. ·주격 조사는 ‘이’가 사용되거나 생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만 사용됨.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됨. ·주격 조사는 ‘이/가’가 사용됨.

3. ‘보기’를 읽고 국어의 역사성을 생각해 보자.

보기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쉬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언어라고 해서 이 보편 법칙을 벗어날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즉, 모든 단어는 변화하며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한다.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다시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별적인 단어 하나하나도 변화하며 이런 변화의 물결이 모여 어휘 전체의 체계나 양상도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휘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에 대한 통시적(通時的) 지식이 현대 국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어리둥절하다
- 조+빨 → 조빨>줍쌀
- 암+뚝 → 암뚝>암뚝

‘어리둥절하다’의 ‘어리-’에는 ‘어리석다’와 관련된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 국어의 ‘어리다’의 뜻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줍쌀’이나 ‘암뚝’에서 나타나는 ‘ㅂ’이나 ‘ㅎ’도 이전의 어두 자음군 ‘ㅃ’이나 ‘ㅎ’ 중성을 가졌던 체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 구분관 외, “한국어 문법 총론 II” 중에서

(1) ‘보기’에 제시된 예들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단어들을 더 찾아보자.

어리숙하다, 어리병병하다 / 휩쓸다 (휘+쓸다) / 살코기 (술+고기), 수탉 (수+닭)

(2) 국어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국어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국어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이 신장되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中御製製訓 훈민민正正音音

㉠나라:말씀미 ㉡中兩國國에 달아 文문字字종와로 서르 스
 댓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百姓姓성이 니르:고져 ·
 홀 ㉢배 아셔도 ㅁ·츄:내제 ·ㅂ·들 사러 퍼디 :물홀 ·노미 하
 나라 ·내 ·아·를 ㉣爲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字종·를 ㅁ·그·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한크 하·고·져 홀 ㅅ·르·미·나라

<훈민정음> 언해, 1459년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
 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
 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
 금 쉽게 익히서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
 다.

기말고사 풀이 (5)

1. 밑글을 읽고 국어의 변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
 다.
- ②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
 다.
- ③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
 였다.
- ④ 중세 국어의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음운으
 로 사용되지 않는다.
- ⑤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서 둘 이상
 의 자음이 쓰일 수 없었다.

기말고사 풀이 (5)

2.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ㅅ’은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겠군.
- ② ㉡의 ‘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의 ‘ㅣ’는 주격조사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
 군.
- ④ ㉣의 ‘하야’를 보니 모음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⑤ ㉤을 보니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기말고사 풀이 (5)

3. 밑글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① ‘말씀’은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의 말을 높
 여 이르는 말이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
 는 점에서 의미 확대의 예이다.
- ② ‘사댓다, 전초’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
 휘 소멸의 예이다.
- ③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오늘날 ‘나이가 적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 ④ ‘놈’은 ‘일반 사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자, 사람’을 낮잡
 아 이르는 말로 쓰여 의미 축소 of 예이다.
- ⑤ ‘어엿보다’는 ‘가엾다’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예쁘다’를 가리
 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기말고사 풀이 (5)

4. <보기>의 ㉠, ㉡, ㉢의 사례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ㅇ’을 입시울소리 아래 니어 쓰면 ㉠입시울 가배야부 소리
 두외느니라

[현대어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와 -와 그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ㅣ
 와 ㅏ와 ㅑ와 ㅓ와 ㅕ와란 ㉢올흔녀그 브터 쓰라.

[현대어 풀이] ·와 -와 그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첫소리 아래
 붙여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오른쪽에 붙여 쓰
 라.

- | | | |
|----------|-------|-------|
| ㉠ | ㉡ | ㉢ |
| ① 文문字字 | 나라 | 퍼디 |
| ② 百百姓姓 | 하·고·져 | 니겨 |
| ③ ㅁ·그·노니 | 이런 | 달아 |
| ④ 하·여 | ㅁ·츄·내 | 시러 |
| ⑤ 수·비 | 물·홀 | 하·니·라 |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기초교과목(사)

5. <보기>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 ㉡에 해당하는 음운을 각각 쓰시오.

<보기>

훈민정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든 다음 이를 기초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자음은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들었으며,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가 있었다. 모음도 먼저 ㉡기본자를 만든 후, 이 기본자를 합성시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기초교과목(사)

6.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세국어 표기법을 쓰시오.

<보기>

- 말쓰미
- 뿌들
- 뿌메
- 쓰르미나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宗御製製訓訓民民正正音音

㉠나라:말쓰미 中東國國에 ㉡달아 文文字字종와로 서르 스
 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홍·배 ·아·셔·도 무·츰·내·제 ㉤·쓰·들 사·러 파·디 :물·홍 ·노·미
 하·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망·그·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하·키 하·고·져 홍 쓰르·미·나·라

중급교과목(사)

7. 윗글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부사격 조사를 표기할 때 ‘ㅅ’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 ② ㉡ : 용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이어 적기하여 표기하였다.
- ③ ㉢ : 한자어를 표기할 때 형식적으로 종성 ‘ㅇ’을 사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였다.
- ④ ㉣ : 주격 조사를 쓸 때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를 쓰지 않고 생략하였다.
- ⑤ ㉤ : 초성을 쓸 때 합용 병서를 단어의 첫머리에 써서 어두 자음군을 표기하였다.

중급교과목(사)

8.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중세국어와 현대 국의 차이점을 탐구한 자료 중 일부이다. 탐구자료 ㉠-㉣에 들어갈 적절한 예시만을 짝지은 것은?

<보기>		
탐구 영역	탐구 자료	탐구 내용
음운의 측면	㉠	가연 :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군.
어휘의 측면	㉡	나연 : 국어가 변화하면서 어떤 어휘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어휘는 그 의미가 바뀌기도 하는군.
문법과 문법 요소 측면	㉢	다연 : ‘가’가 쓰일 자리에 다른 형태가 쓰인 것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구나.

- | | | |
|--------|------|------------------|
| ㉠ | ㉡ | ㉢ |
| ① 서르 | 어엿브다 | :물·홍 ·노·미 하·나·라 |
| ② 니르고져 | 어리다 | 홍 ·배 아·셔·도 |
| ③ 날로 | 전초 | 나·랏 :말·쓰·미 |
| ④ 너겨 | 놈 | ·스·물·여·들 字·종·를 |
| ⑤ 사름마다 | 나라 |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宗御製製訓訓民民正正音音

나라:말쓰미 中東國國에 달아 文文字字종와로 서르 스
 뭇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홍 ·배 아·셔·도 무·츰·내·제 ·쓰·들 사·러 파·디 :물·홍 ㉡·노·미 하·
 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망·그·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
 메 便·便·安·안·하·키 하·고·져 홍 쓰르·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에서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문항 분석】

9. 윗글의 ㉠~㉡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 없는 것은?

<보기>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생, 성장, 소멸한다.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의미 영역이 확대되기도 하고(의미 확대),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며(의미 축소),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의미 이동).

- ① ㉠ : 말씀 ② ㉡ : 어리다 ③ ㉢ : 놈
 ④ ㉣ : 어엿브다 ⑤ ㉤ : 사름

【문항 분석】

10. 윗글을 읽고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② 현대 국어에서는 소실된 음운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체언과 조사를 적을 때 그 체언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 ④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 ⑤ 비교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사격 조사가 현대 국어와는 다른 형태로 존재했다.

【문항 분석】

11.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耶陽輸輸 | ……(목련드려) ㉡世生尊존스 安한^ㅈ불 ㉢문 좁고 ㉣니르샤디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 “석보상절(釋譜詳節) 권6” 중에서

- ① ㉠을 통해 ‘ㅣ’모음이나 반모음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붙는 주격 조사의 쓰임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목적격 조사 ‘ㅅ’의 쓰임을 알 수 있다.
- ③ ㉢을 통해 자음어미 앞에서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임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목적어의 대상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임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평서문에서 청자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임을 알 수 있다.

【문항 분석】

12. <보기>와 어휘의 변화의 양상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전·초’는 원래 까닭이나 이유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단어이다.
 ㄴ. ‘스랑하다’는 원래 ‘생각하다’와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사랑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ㄷ. ‘식식하다’는 원래 ‘엄하다’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용감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 | | | |
|-------|-----|------|
| ㄱ | ㄴ | ㄷ |
| ① 말씀 | 불휘 | 어리다 |
| ② 불휘 | 어리다 | 놈 |
| ③ 하다 | 놈 | 어엿브다 |
| ④ 스뭇다 | 하다 | 어엿브다 |
| ⑤ 스뭇다 | 말씀 | 어엿브다 |

【문항 분석】

13. <보기>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한 서술로 잘못된 것은?

<보기>

제2장
 불휘 가픈 남근 부르매 아니 :말씨 꽃 :도코 여름 ·하
 닉·니
 :사·미 가픈 ·므른 ·그므래 아니 그·츨씨 :내히 아려 바
 르·래 가·닉·니

제125장
 千世(천세) 우·희 마·리 定(정)·하·산 漢水北(한수북)에 累仁
 開國(누인개국)·하·샤 卜年(복년)·이 :궁 :업·스사·니
 聖神(성신)·이 :나·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하·샤·사 더욱
 구·드·사·리·이다
 ·남·금·하 아·르·쇼·셔 洛水(낙수)·에 山行(산행) ·가 이·셔 ·하
 나·빌 마·드·니·잇·가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중에서

- ① 상대높임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었어.
- ② ‘여름’이 ‘열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
- ③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어.
- ④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을 사용하였어.
- ⑤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거나 생략되었어.

“한국어의 언어 활력” 정책 모의

01 언어 활력의 개념과 평가 요소

인구 자산	언어 인구의 수효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어 활력이 높음.
경제 자산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며, 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 활력이 높음. 무역의 규모, 인구 1인당 국민 소득 등이 관계됨.
정치 자산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를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가 높을수록 언어 활력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함.
문화 자산	교육적·학문적·예술적 성취를 가리키며, 이러한 성취가 높을수록 언어 활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함.

02 한국어의 언어 활력

인구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기준 한국어 사용 인구가 약 8천만 명으로 세계 12위에 이룸. •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이 되었음. •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누적 응시자 수가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음.
경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 내고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음. • 5천만 명 이상의 인구조로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들어가는 ‘20-50 클럽’에 2012년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함.
정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문화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만년 동안 고유문화를 보전해 왔으며,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음. • 한글문화로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음. • 2015년 기준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의 세계 유산으로 12개가 등재되었으며, “훈민정음해례본”을 포함하여 13개의 세계 기록 유산이 등재되어 있음. •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음. • 국제 연합 산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2007년 한국어를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에 따른 국제 공개어 10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함.

03 한국어의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가정, 교실,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국어 사용에 대해 성찰해야 함.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함.

한국어를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함.

그라신 학습 활동 문제

1. 이 글에서 설명한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정리해 보자.

인구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사용 인구가 2016년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이룸.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가 2016년 9월 약 204만 명이 됨. 한국어 능력 시험의 누적 응시자 수가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섬. 	경제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함. 우리나라는 20-50 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함.
정치 자산	민주주의 지수가 2015년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에 해당함.	문화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만년 동안 고유 문화를 보전해왔고,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한글 문화로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킴. 2015년 기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12개, 세계 기록 유산에 13개가 등재됨.

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생각해 보자.

<p>굴 어떤 나라 노래 들었어요. 그 노래가 어느 나라 것인지, 누가 지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 한국! 천천히 조금 더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어.</p> <p>리투아니아 빌뉴스 세종 학당 수강생</p>	<p>㉠ 한국어는 제가 좋아하는 언어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제가 수행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p> <p>한국 ○○ 회사 베트남 법인 영업부 과장</p>
---	---

(1) , 는 한국어의 언어 활력 중 어떤 자산과 관련 있는지 파악해 보자.

굴은 문화 자산 및 인구 자산과, ㉠은 경제 자산 및 인구 자산과 관련된 것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발전 정도를 언어 활력(言語活力)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로는 인구 자산, 경제 자산, 정치 자산, 문화 자산 등을 든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언어 활력은 어떠할까?

먼저 인구 자산은 언어 인구의 수효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언어 활력이 높다. 국제 연합(UN)의 6대 공용어인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는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 언어 활력이 높다.

힌디어, 포르투갈어, 벵골어, 일본어도 모어(母語) 사용자수에 따른 언어 순위에서 사용 인구가 1억 명을 넘으며 10위 안에 들고 있다. 우리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에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이 되었고,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 자산은 경제 규모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 내었고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 또,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로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 이상을 달성한 나라가 들어가는 20-50 클럽에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일곱 번째로 진입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성취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정치 자산은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를 말한다. 영국의 주간지(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를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다섯 개 분야로 평가하여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 자산은 교육적·학문적·예술적 성취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 고유문화를 보전해 왔고, 한자 문화로 동양의 유교·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한글문화로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2015년 기준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의 세계 유산으로 등재(登載)된 것도 열두 개가 있으며,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훈민정음해례본” 등 열세 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韓食)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국제 연합 산하(傘下)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2007년 제43차 총회에서 183개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 특허 협력 조약(PCT)에 따른 국제 공개어 열 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국제 특허를 출원(出願)할 때 국제 공개어를 번역어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인구·경제·정치·문화 자산 덕분에 현재로서는 언어 활력이 높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어가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어 사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의 사용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물론 공문서 등에서도 외래어가 남

용(濫用)되고 외국어가 사용된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한 말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말들이 일상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 언어, 교실 언어, 직장 언어, 공공 언어, 언론 언어, 학문 언어 등 모든 영역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국어가 더욱 큰 언어 활력을 지닌 언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어가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그려 본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의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질문·답변(50)

1. 한국어의 언어 활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 한국어의 인구 자산이 커진다.
- ②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 ③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정도도 언어 활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 ④ 교육적·학문적·예술적 성취도 한 언어의 언어 활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 ⑤ 한 언어의 언어 활력은 인구 자산, 경제 자산, 정치 자산, 문화 자산 중 가장 높은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질문·답변(50)

2.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국어생활을 성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수 : 평소에 대화할 때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겠어.
- ② 제니 : 친구들과 장난칠 때 비속어를 자주 사용해 왔어. 욕설도 종종 사용했지. 앞으로는 바른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겠어.
- ③ 로제 : 최근 유행하는 말들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제부터는 우리말의 과거 모습을 알아보고 최대한 과거의 국어 모습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야겠어.
- ④ 리사 : 재미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파괴된 형태의 국어를 사용하고는 했어. 앞으로는 지나치게 파괴된 형태의 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어.
- ⑤ 헤림 : 외국어를 많이 쓰면 더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수업을 할 때 외국어를 많이 사용했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야지.

“담화 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학습 명단

01 말하기에 대한 옛말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로 나간다. 입이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목을 자르는 칼이다 입 지키기를 병마개 막듯 하라.	→	교훈 말을 삼가야 한다.
---	---	-------------------------

02 말을 적게 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할 말

말을 적게 해야 하는 이유	하지 말아야 할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 많으면 지루하고 번거로워 듣는 이가 좋아하지 않음. • 말 가운데 망발이 있을 수 있음. • 생각하지 않고 불쑥 가볍게 말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朝廷)의 이해(利害) • 관리들의 잘잘못 • 고을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함 • 사람마다의 생활 태도나 잡다한 사생활

03 말할 때와 들을 때의 유의점

말할 때의 유의점	들을 때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화한 목소리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함. • 남을 칭찬 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함. • 남을 책망할 때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아야 함. • 야비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말, 박절하고 듣기 흉한 말은 절대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함. • 집안 어른은 말을 할 때 충후하면서도 간략하고 엄중한 태도로 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거짓과 참을 가려들어야 하며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됨. • 여러 사람과 얘기할 때 초설을 해서는 안 됨.

04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랑 고백

고교 앞길(1976)	→	마블렌(2002)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임. ⇒ 소극적 태도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직설적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임. ⇒ 적극적태도

모라신 박승 탐구 명단

1. ㉠에 드러난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1)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삼가고 신중하게 해야 함. • 조정의 이해나 관리들의 질 잘못,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함. • 온화한 목소리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함. • 칭찬이나 책망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함. • 야비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말, 박절하고 듣기흉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함.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의 이해나 관리들의 잘잘못, 다른 사람의 사생활 등에 대한 말을 듣지 말아야 함. • 거짓과 참을 가려서 들어야 함. •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지르지 말아야 함.

(2) '보기'의 속담을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보자.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말라.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 ㉡ ㉢	㉣ ㉤

2. 밑에 드러난 담화 관습을 살펴보자.

(1) 1, 2의 두 인물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보자.

1 고교 알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친구가 되자는 제안도 하지 못했다.

2 마들렌

적극적으로 사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3. 다음 만화에 드러난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별말씀을요. 상다리가 휘어지겠어요.
제 요리 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입에나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솜씨가 대단하신걸요.

(1) 만화에 나타난 담화 관습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자신이 한 일이나 가진 능력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관습과 그러한 겸양의 표현에 칭찬으로 화답하는 관습이 드러나 있다.

(2) 만화에 나타난 담화 관습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장점	단점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낮추고 상대를 높여 줌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상투적인 표현이라 진실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 겸양이 지나치면 상대가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필자 관습

1. 필자가 인용한 두 개의 옛말이 어떤 뜻인지 말해 보자.

말이 화근이 되어 재앙을 부른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2. 필자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들어서도 안 되는 말로 제시한 것들을 정리해 보자.

조정의 이해와 관리들의 잘잘못, 고을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함, 타인의 생활 태도나 사생활 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말에 이르기를,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로 나간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입이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목을 자르는 칼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모두가 지극한 교훈이다. 재앙을 부르는 길이 꼭 한길만은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말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주(周)나라의 태묘(太廟) 앞 금인(金人)도 입을 세 군데나 꿰매었다. 이 역시 성인(聖人)이 만세에 교훈을 남기신 뜻이니, 말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말이 많으면 지루하고 번거로워서 듣는 이가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 가운데 ㉢**망발(妄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제일이고 적게 하면서도 순서를 잃지 않아야 좋다. 만약 생각하지 않고 불쑥 가볍게 말했다가는 피해를 보는 일이 많게 된다.

“입 지키기를 병마개 막듯 하라.”라고 한 말도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인 것이다. 시비를 따지는 일은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조정(朝廷)의 이해(利害)와 관리들의 잘잘못 그리고 고을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함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마다의 생활 태도라든지 잡다한 사생활 같은 것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똥한 화를 입게 마련이다. 여럿이 모인 곳에서도 만약 그와 같은 말이 시작되면 곧 몸을 일으켜 그 자리를 피하고 절대로 끝까지 들어서는 안 된다.

말이 너무 가벼우면 ㉣**위의(威儀)**를 잃게 되고, 너무 무거우면 또 거만한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선량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할 때 성난 얼굴에 큰 소리를 지르면 듣는 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니 그 말들이 다 뜻에 맞는 말만은 아닐 때면 더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온화한 목소리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하면 듣는 이도 자연 희열을 느끼게 된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속으로 거짓과 참을 가려들어야지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과 얘기할 때 초설(剿說)을 해서는 안 되는데, 초설이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로지르는 것을 말한다.

남을 칭찬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남을 책망할 때도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고을에서 ㉤**은원(恩怨)**이 없을 것이다.

야비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말, ㉥**박질하고** 듣기 흉한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집안 어른은 말을 할 때, ㉦**충후(忠厚)**하면서도 간략하고 엄중해야 한다. 만약 한번 시킨 일을 다시 타이르고, 타이르고 나서 금방 또 강조하여 너무 자질구레하게 굴면 아랫사람들이 따르기에 피곤을 느껴 원망 투의 말이 나오고 속이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

1. ㉠, ㉡과 관련이 먼 한자 성어를 고르면?

- ① 구곡간장(九曲肝腸) ② 구화지문(口禍之門)
- ③ 병종구입(病從口入) ④ 설참신도(舌斬身刀)
- ⑤ 화종구출(禍從口出)

2.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남을 책망할 때에는 너무 혹독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남을 칭찬할 때에는 지나치게 해도 괜찮다.
- ③ 남의 말을 들을 때에는 참과 거짓을 가리며 의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④ 내용이 좋고 선량한 말이라도 성난 얼굴에 큰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면 타인이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⑤ ‘주(周)나라의 태묘 앞 금인(金人)도 입을 세 군데나 꿰매었다.’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3. ㉢~㉤ 중 단어의 의미가 잘못된 것은?

- ① ㉢ :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이나 행동을 함. 또는 그 말이나 행동
- ② ㉣ :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 ③ ㉤ : 은혜와 원한을 아울러 이르는 말.
- ④ ㉥ : 인정이 없고 쌀쌀하고
- ⑤ ㉦ : 태도 따위가 정중하고 무게가 있는

4. 다음 속담 중 필자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말이 씨가 된다
- ② 혀 밑에 도끼 들었다
- ③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옛말에 이르기를, “질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재앙은 혀로 나간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입이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목을 자르는 칼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모두가 지극한 교훈이다. 재앙을 부르는 길이 꼭 한길만은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말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주(周)나라의 태묘(太廟) 앞 금인(金人)도 입을 세 군데나 꿰매었다. 이 역시 성인(聖人)이 만세에 교훈을 남기신 뜻이니, 말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말이 많으면 지루하고 번거로워서 듣는 이가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 가운데 망발(妄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제일이고 적게 하면서도 순서를 잃지 않아야 좋다. 만약 생각하지 않고 불쑥 가볍게 말했다가는 피해를 보는 일이 많게 된다.

“입 지키기를 병마개 막듯 하라.”라고 한 말도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인 것이다. 시비를 따지는 일은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일이지만 조정(朝廷)의 이해(利害)와 관리들의 잘잘못 그리고 고을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함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마다의 생활 태도라든지 잡다한 사생활 같은 것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화를 입게 마련이다. 여럿이 모인 곳에서도 만약 그와 같은 말이 시작되면 곧 몸을 일으켜 그 자리를 피하고 절대로 끝까지 들어서는 안 된다.

말이 너무 가벼우면 위의(威儀)를 잃게 되고, 너무 무거우면 또 거만한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선량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할 때 성난 얼굴에 큰 소리를 지르면 듣는 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니 그 말들이 다 뜻에 맞는 말만은 아닐 때면 더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온화한 목소리로 나직하고 부드럽게 하면 듣는 이도 자연 희열을 느끼게 된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속으로 거짓과 참을 가려들어야지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과 얘기할 때 초설(剿說)을 해서는 안 되는데, 초설이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로지르는 것을 말한다.

남을 칭찬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남을 책망할 때도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고을에서 은원(恩怨)이 없을 것이다.

아비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말, 박절하고 듣기 흉한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집안 어른은 말을 할 때, 충후(忠厚)하면서도 간략하고 엄중해야 한다. 만약 한번 시킨 일을 다시 타이르고, 타이르고 나서 금방 또 강조하여 너무 자질구레하게 굴면 아랫사람들이 따르기에 피곤을 느껴 원망 투의 말이 나오고 속이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

(나)

두수: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난 나두수라고 합니다. 난 인숙이를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인숙인 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으로 친구가 될 수 없을까요?

두수: (거리에서 인숙을 만나서)저, 저, 저…….

인숙: 왜 그러죠?

두수: 집에서 뭐 좀 사오라고 해서요.

인숙: 뭘 사 오라는데요? 저녁 찬거리인가요?

두수: 네, 뭐, 찬거리죠. 아휴!

-고교 앞개(1976년)

희진: 강지석, 내가 오늘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해 줄까?

지석: 어떻게?

희진: 우리 사귀자!

지석: 우리. 아직 서로를 잘 모르잖아?

희진: 누가 결혼하재? 서로를 잘 모르니까 사귀어 보자는 거 아냐? 야, 너 나 싫어?

지석: 그건 아냐, 생각할 시간을 좀 줘.

희진: 좋아, 그럼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만이다.

-마들렌

(다)



5. (가)를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가)를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할 때와 들을 때의 유의점은 무엇인가?
- ② 바람직한 말하기 방식은 무엇인가?
- ③ 말의 효용성에 대해 언급한 옛말은 무엇인가?
- ④ 말을 적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말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충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

▶ 정답·풀이 (가)

6. 다음은 (가)의 필자(A)와 <보기>의 화자(B)가 나누는 가상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대화 내용은?

<보기>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내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 말음이 좋아라

- ① A: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② B: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많으면 그 말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 ③ A: 특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함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 ④ B: 그렇습니다. 내가 남의 험담을 하면 남도 내 험담을 할 것이니까요.
- ⑤ A: 그러기에 그런 말이 대화 중에 나오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 정답·풀이 (나)

7.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는 남자가 감정표현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현대에 가까울수록 여성이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마들렌'의 담화관습을 선호하는 경우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 ③ 담화관습은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변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70년대에는 이성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2000년대에는 이성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임 알 수 있다.

▶ 정답·풀이 (다)

8. (다)의 담화 관습을 바탕으로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음을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 관습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겸양이 지나치면 상대가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자신이 한 일이 겸손하게 표현하는 관습이 드러나 있다.
- ⑤ 겸양의 표현에 칭찬으로 화답하는 관습이 드러나 있다.

▶ 정답·풀이 (가)

9. (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시오.

<보기>

- 1) 입만 가지면 서울 이 서방 집도 찾아 간다.
- 2) 음식은 갈수록 좋고 말은 갈수록 는다.
- 3) 죽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 4)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5)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소유냐 존재냐” 문덕 명리

이 테니슨, 바쇼, 괴테의 시 비교

	테니슨의 시	바쇼의 시	괴테의 시
화자의 행위	꽃을 꺾음.	꽃을 가만히 살펴봄.	꽃을 뿌리째 파내어 옮겨 심음.
행위의 결과	꽃이 죽음	꽃이 살아 있음.	꽃이 다시 살아남.
화자의 태도 및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소유함으로써 분석적으로 이해하려 함. • 지적 호기심의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 있는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함. • 꽃과의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을 소유하지만 그 존재를 훼손하지 않음. • 단순한 지적 호기심보다 생명을 존중함.
삶의 양식	소유 양식	존재 양식	소유, 존재 양식

02 현대인들과 영웅들의 삶

현대인들의 삶	영웅들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감을 얻기 위해 존재에 집착함. •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회피하려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에 얽매이지 않음. •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나아감.

03 소유 양식의 삶과 존재 양식의 삶 비교

소유 양식의 삶	존재 양식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한 것에 대한 상실의 위협으로 인해 늘 불안감을 느낌. •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짐. • 돈, 명성,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곧 자신 외부의 것에 의존함. •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한 것에 대한 상실의 위협에서 오는 불안감이 없음. • 유일한 위협이 나 자신 속에 있지만, 소유 양식의 삶처럼 위협이 늘 있는 것은 아님. •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없는 한 나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음. •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함.

근대신 학생 활동 문제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1) 여러 시적 표현의 실례에 나오는 세 편의 시를 다음 표에 정리해 보자.

	행위	결과	태도	삶의 양식
테니슨의 시	꽃을 꺾음.	꽃이 죽음.	자연을 소유함으로써 분석적으로 이해하려 함.	소유 양식
바쇼의 시	꽃을 바라봄	꽃이 살아 있음.	자연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 있는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함.	존재 양식
괴테의 시	뿌리째 파내어 옮겨 심음.	꽃이 다시 살아남.	자연을 소유하지만 그 존재를 훼손하지 않음.	존재 양식

9-(1) 소유냐 존재냐

(2) 안정감과 불안감에 제시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삶의 모습을 써 보자.

소유 양식의 삶	존재 양식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함.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짐.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됨. •소유한 것을 상실할 위험이 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이 없음.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음.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함. •유일한 위험은 나 자신 속에 있음.

(3) 이 글의 필자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필자는 존재 양식의 삶을 추구한다. 늘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과 상실의 위험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소유 양식의 삶과 달리, 존재 그 자체로서의 능력을 발현함으로써 세상과 하나가 되고 살아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 양식의 삶을 진정한 삶으로 보고 있다.

2.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글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창의적으로 읽어 보자.

(1) 이 글에서 의문이 생기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려 보자.

꽃에 대한 테니스의 생각은 소유 양식에 해당한다. 뿌리째 뽑아 든 꽃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지식의 소유를 암시한다. 반면에 꽃에 대한 바쇼와 괴테의 생각은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괴테의 생각은 소유 양식에 더 가깝지 않을까?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집에만 꽃을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꽃이 있는 곳으로 자주 다니지 않았을까?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서 정원에 다시 심음으로써 그 생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괴테는 말하자면 테니스와 바쇼 사이에 있는 것이다.	괴테의 방식은 단순히 꽃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꽃을 자신의 정원에 옮겨 심어 보호하고 보살핌으로써 꽃의 생명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3. 이 글의 내용에서 다음 시평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써 보자.

<p>최근 우울이나 공황, 분노와 같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교수(××대 정신건강 의학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p> <p>“두 가지 양상이 있다. 하나는 강박증이다.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학생도 이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이다. 이 학생들은 자존감의 근원이 성적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갈수록 이것이 어려워져 불안하고 예민해진다. 더 잘하고 싶고 잘 안되거나 실수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다른 한편에 있는 것이 분노와 무기력이다. 이들은 늘 화가 나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런 상태로 무기력하게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p> <p>이러한 현상은 과도한 입시 부담, 소원해진 부모와의 관계, 폭력적인 또래 문화 등을 원인으로 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경쟁 위주의 사회 구조,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와 관련이 있다.</p> <p>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취를 해도 이에 만족하며 여유를 가지기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긴 호흡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거나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져 당분간 뭐가 하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이 사회에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p> <p style="text-align: right;">- 한국일보, 2016년 6월 13일 자</p>
--

물질이나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을 영원히 소유욕에 빠지게 만들고, 경쟁 속에 갇히게 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몰아세우고 남과 비교함으로써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스스로를 불행으로 이끌 것이다.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함으로써 자기 내부의 힘을 회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4. 이 글의 내용을 다음 영화 장면에 적용해 보자.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잡지사 편집자인 주인공 월터는 잡지 표지에 실게 될 사진의 필름을 잃어버려, 할 수 없이 그것을 보낸 사진작가 손을 찾아 히말라야산맥으로 간다. 우여곡절 끝에 손을 만난 월터는 그와 함께 눈표범이 등장하는 극적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기한다. 그런데 마침내 눈표범이 나타났을 때 손은 사진을 찍지 않고 가만히 바라만 본다. 월터가 왜 사진을 찍지 않는냐고 묻자 손은 이렇게 답한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에 때로는 사진을 찍지 않아. 그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거야.”

(1) 이 글의 필자라면 영화 속 ‘손’의 태도에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추측해 보자.

필자는 손이 존재 양식의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손은 인생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며, 그래서 너무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즐긴다. 따라서 필자는 손을 지지할 것이다.

(2) 이 글 속 세 편의 시에 나타난 꽃에 대한 태도를,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 촬영의 상황에 적용해 보자.

꽃을 꺾는 것	➔	아름다운 풍경을 부고두 감동하기보다는 사진으로남겨 둘 생각에 사무적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
꽃을 바라보는 것	➔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동하여 사진을 찍는 것을잠시 잊고 그 장면에 몰입하여 감상하는 행위
꽃을 옮겨 심는 것	➔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상에 빠지지만 동시에 예약 촬영을 통해 사진으로 남기는 행위

문명 문명 문명

1.사람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란 어떤 문화인지 써보자.

사람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 활용 가치나 유용성에 따라 그 값을 매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는 물질을 인간보다 더 중시하는 풍조, 즉 물질 만능 주의나 배금주의(排金主義) 사상이 만연한 사회 문화를 의미한다.

2.테니슨이 꽃을 뿌리째 뽑아낸 까닭을 말해 보자.

테니슨은 꽃을 소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살아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체하려는 사람이다.

3.괴테의 시 4연에 나타난 태도를 앞의 두 시에 나타난 태도와 비교해 보자.

괴테는 테니슨처럼 소유하기 위해 생명을 해체하지(죽이지)도 않았고, 바쇼처럼 생명 그 자체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기만하지도 않았다. 그의 태도는 소유하면서도 존재하게 하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존재 양식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소유하려고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세계와 하나가 되는삶의 양식

5.사람들이 영웅을 찬양하면서도 영웅이 되지 못하는 까닭을 써보자.

영웅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영웅이 아니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 부처는 해탈(解脫)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 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예고)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다. <중략>

다음 두 편의 시에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하나는 일본 시인 바쇼(1644~1694), 다른 하나는 영국 시인 테니슨(1809~1892)의 시이다.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였다. 먼저 테니슨의 시를 보자.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험히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바쇼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 있네.
울타리 밑에!

이 두 시의 차이는 크다. 테니슨의 반응은 꽃을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 버린다. 여기서 테니슨은 살아 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바쇼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꽃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꽃에 손을 대지조차 않는다. 다만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테니슨은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그 꽃을 소유하려 했던 것 같다. 그가 꽃을 ‘소유함’으로써 꽃은 파괴되고 만다. 하지만 ㉠바쇼가 바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 꽃을 그대로 살려 두면서 자신을 꽃과 일치시킨다.

(나)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으며, 조만간 잃도록 되어 있다.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김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發現)⁴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게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해당하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고문, 그 밖의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지적 창조의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쓰이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지만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퇴보(退步)⁵적 경향, 내적인 나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등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 양식의 삶에 상실의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에리히 프롬, ‘소유나 존재나’ 중에서

【중요한 문헌(연구)】

1. (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쇼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꽃을 바라 보았다.
- ② 필자는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존재 자체보다는 소유를 더욱 중요시한다고 생각한다.
- ③ 돌담에 핀 꽃 한송이를 뿌리째 뽑은 테니슨의 행위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부처’, ‘예수’, ‘에크하르트’ 같은 인생의 위대한 스승들은 소유하는 삶의 자세를 중시하지 않았다.
- ⑤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중, 바쇼의 시는 존재 양식을, 테니슨의 시는 소유 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흰히 알 수 있으리라.

(나)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 있네.
 울타리 밑에!

(다)

그늘 속에서
 나는 한 떨기 꽃송이를 보았어.
 별처럼 반짝이며
 작은 눈동자처럼 아름다웠지.

나는 그 꽃을 꺾으려 했지.
 그러자 꽃은 속삭였어.
 난 꺾여
 시들어 버릴 테죠?

나는 그것을
 아름다운 정원에다 심으려고
 ㉣뿌리째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지.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고
 자꾸자꾸 꽃을 피우고 있네.

(라)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유아일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장난감을 ‘갖게’ 되고, 그 후에 지식,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들을 ‘갖게’ 되며, 좀 더 지나면 내생(來生)이라고 할 만한 것, 즉 매장지, 생명 보험, 유언 같은 것까지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에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영웅이란 자신이 가진 것, 즉 토지, 가족, 재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

진 사람이다. 그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敢行)한다³. 지위와 가족 등 모든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 부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품없는 존재였지만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예수가 그러했다. 또한 모험과 위험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 같은 이야기 속의 영웅들도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그들 역시 가진 것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무릅쓰며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들 영웅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믿는다. 오로지 영웅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웅은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들 우상에게 넘겨준 채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라는 까닭을 내세우면서.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어리석고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으며, 조만간 잃도록 되어 있다.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김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소유 양식의 삶에는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發現)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해당하며,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고문, 그 밖의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지적 창조적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쓰이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지만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퇴보(退步)적 경향, 내적인 내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등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 양식의 삶에 상실의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주요-교재-문단(교재)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소유하는 행위로 그 결과는 꽃의 죽음이다.
- ② ㉡: 진리를 소유하려고 꽃을 뿌리째 뽑으려는 것이다.
- ③ ㉢: 꽃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꽃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다.
- ④ ㉣: 자연 탐구를 통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모습이다.
- ⑤ ㉤: 꽃을 새로운 터전에 옮겨 심음으로써 그 존재를 확인하게 한다.

주요-교재-문단(교재)

7. ㉠과 ㉡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 삶의 기본 양식이다.
- ② ㉠에는 위험이 있지만 ㉡에는 위험이 없다.
- ③ ㉠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게 된다.
- ④ ㉡는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기거나 위협할 수 없다.
- ⑤ ㉠은 사용함으로써 감소하고, ㉡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주요-교재-문단(교재)

8. 밑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소유와 존재'라는 대립적 가치의 대비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ㄴ. 시를 통해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삶의 방식을 고찰하고 있다.

ㄷ. (가)는 소유 양식, (나)는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ㄹ. (다)는 (가)와 (나)의 중간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

ㅁ. 구체적 경험을 사례로 들어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 ③ ㄷ,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ㄱ, ㄴ, ㅁ

주요-교재-문단(교재)

9. (라)를 참고하여 삶의 양식을 정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이 소유한 것은 항상 상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군.
- ② 존재 양식은 소유 양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군.
- ③ 소유 양식은 자신 외부의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늘 불안감에 젖을 수 있겠군.
- ④ 존재 양식은 나의 중심이 자신에 있으므로 안정감과 주체성이 보장 되겠군.
- ⑤ 소유 양식은 사용함으로써 감소할 수 있고, 존재 양식 또한 실천 정도에 따라 감소하거나 성장할 수 있다.

주요-교재-문단(교재)

10. (라)를 참고하여 (가)~(다)의 시 중 <보기>와 유사한 삶의 양식을 보이는 것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보기>

十年(십 년)을 經營(경영)하여 草廬三間(초려 삼간) 지여내니
 나 훈 간 돌 훈 간에 淸風(청풍) 훈 간 맛져 두고
 江山(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협력하는 의사소통” 협력 범위

01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 발신자, 수신자: 의사소통의 주체로, 듣기·말하기에서는 화자, 청자를 가리킴.
- 메시지: 전언(傳言). 발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리킴.
- 반응: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응답
-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 장면

02 의사소통 과정의 개념과 태도

의사소통 과정의 개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임.
의사소통 과정의 태도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여 수시로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능동적으로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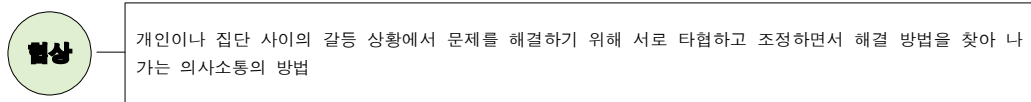
03 듣기·말하기 과정에서의 점검과 조정 사항

듣기 과정에서의 점검과 조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숨겨진 의미를 적절히 추론하고 있는가? • 발언의 내용이나 방식의 적절성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는가? • 화자의 말에 공감하거나 감동하며 듣고 있는가?
말하기 과정에서의 점검과 조정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할 때와 표현하고 전달할 때 말하기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가? • 언어적 표현 외에도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나 보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의도한 바가 청자에게 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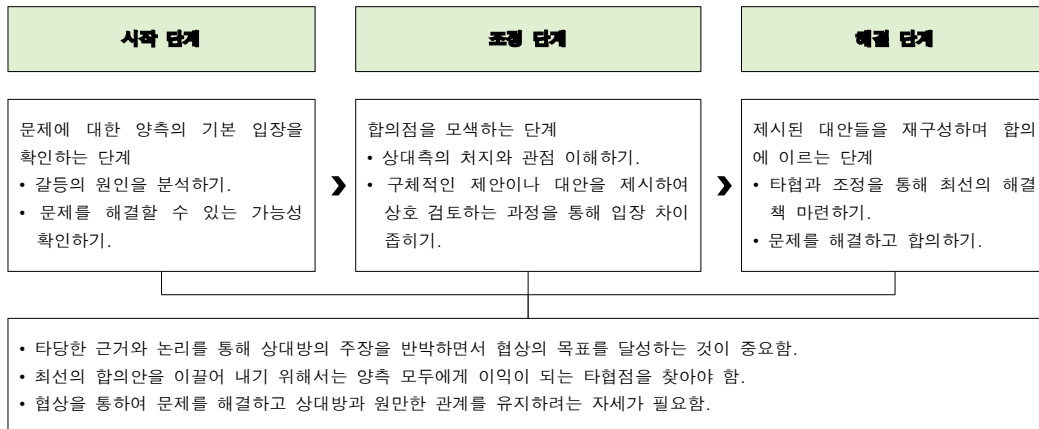
04 일상생활에서의 듣기와 말하기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임해야 함. • 서로 배려하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해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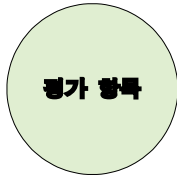
01 협상의 개념



02 협상의 절차



03 협상을 평가하고 개선점 찾기



- 갈등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 우리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는가?
- 상대측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을 하였는가?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는가?
-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는 표현(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는가?

모의심 박순 행동 심의

1.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에서 각각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
가스를 차단한 다음 뭘 하라고 했었지?
앞으로는 기록해 두어야겠어.

㉡
제가 겪었던 일로 볼 때……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는데,
적절한 근거일까?

㉢
조심 좀 하지 않고
앗, 좀 더 다정하게 위로를 건넬걸.

㉣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고
합니다.
밝은 표정과 씩씩한 말투로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글: 듣기 과정에서 화자의 발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점검하여 놓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앞으로는 메모를 하며 들어야겠다고 듣기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

㉠: 듣기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언 내용의 적절성을 점검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말하기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병문안이라는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게 위로하는 말하기가 필요했음을 깨닫고 있다.

㉢: 말하기 과정에서 적절한 비언어적·준언어적표현의 활용을 점검, 조정하고 있다. 면접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말투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2)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태도를 고려하여 이 글에 제시된 사례 ㉤을 적절하게 고쳐 보자.

동생: 누나, 바쁜데 미안. 지구 온난화에 대해 쓴 글인데, 좀 봐 주면 좋겠어.
누나: 그래, 어디 같이 한번 보자.

누나: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지만, 태평양 쓰레기 섬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니?

동생: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중요할 것 같아 넣었는데…….

누나: 중요한 내용이라도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넣어서 곤란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글을 쓰기 위해 사전에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단다.

동생: 개요가 뭐야?

누나: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미리 요점을 간추려 정리해 봄으로써 짜임새 있는 글을 쓸 수 있지.

동생: 아, 그렇구나. 고마워, 누나.

2. 다음 회의 장면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자.

학생회장: 지난 회의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학교 축제 때 자선 장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선 장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문화부장: 자선 장터의 성격상 봉사부에서 자선 장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봉사부가 축제 때 딱히 하는 일도 없고요.

봉사부장: 아니, 자선 장터랑 우리 부가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몇 명 안 되는 부원들하고 어떻게 자선 장터를 진행해요?

총무부장: 저도 동의합니다.

학생회장: 어떤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총무부장: 아무래도 봉사부원들만으로는 자선 장터 진행이 버거울 것 같다고요.

체육부장: 자선 장터가 활성화되면 특정 부서보다는 학생회 전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학급 차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부장: (불쑥 끼어들며) 우리 부서는 전시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학급별로 자선 장터를 하자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학생회장: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언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육부장이 하려던 말을 마저 들어 봅시다.

체육부장: 학급별로 자선 장터를 실시하자는 뜻은 아니고, 무엇보다 자선 장터 물품들을 풍부하게 모으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를 각 학급에서 맡으면 효율적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홍보부장: 좋은 의견이네요. 그러면 학생회의 일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열심히 홍보하여 자선 장터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체육부장: 전시회를 맡았으니 문화부는 배려해 주고, 저희 부와 총무부, 봉사부에서 자선 장터 물품 판매를 맡으면 되지 않을까요?

총무부장, 봉사부장: 좋습니다.

학생회장: 예, 의견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른 해보다 더욱 뜻깊은 학교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다음 부분에 나타난 듣기·말하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그 까닭을 써 보자.

봉사부장: 아니, 자선 장터랑 우리 부가 무슨 상관이야?

→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총학생회 회의라는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이다.

총무부장: 저도 동의합니다.

→무엇에 동의하는지가 불명확하여 화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말하기이다.

학생회장: 어떤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상대방의 불명확한 발언을 들은 후에 그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듣기 자세이다.

(2) ‘홍보부장’과 비교할 때, ‘문화부장’의 의사소통 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써 보자.

홍보부장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고 있는 데 반해, 문화부장은 상대의 발언을 중간에 끊고 "말이 안 돼요."라며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봉사부가 딱히 하는 일이 없다며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장은 홍보부장에 비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1), (2)와 관련하여 자신의 평소 듣기·말하기 활동과 의사소통 태도를 되돌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듣기·말하기 활동	의사소통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회의에서 반말을 사용한다. • 의미가 불분명한 유행어를 자주사용한다. • 들은 내용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 상대의 말을 끊을 때가 있다. • 상대방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면 무시할 때가 있다. • 흥미가 없는 화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다.

9-(2) 협력하는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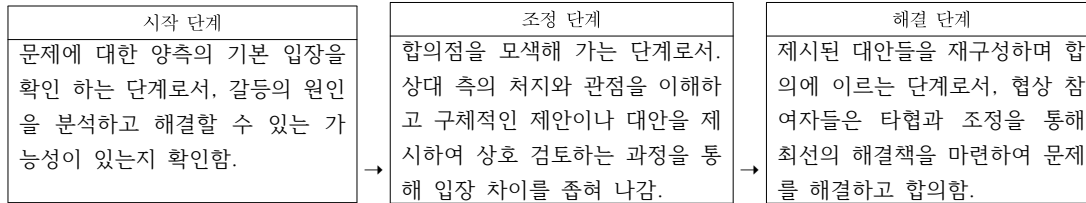
■ 협상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협상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1. 이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협상의 개념과 절차를 정리해 보자.

•협상의 개념: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

•협상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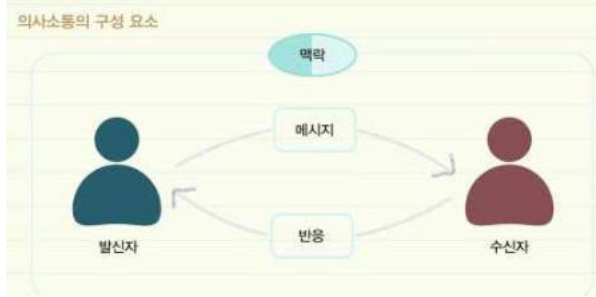


(2) 이 글에 제시된 두 아파트 대표 간의 협상을 정리하고, 협상이 성공적이었는지 근거를 들어 평가해 보자.

㉞ 아파트 대표	㉟ 아파트 대표
<p>•최초 요구:</p> <p>㉞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㉟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음.</p> <p>•조정 단계에서 제시한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㉟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 대에 한해서 테니스장을 이용 -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의 20%를 ㉞ 아파트 주민들에게 할애 <p>•최종 결과(얻은 것, 양보한 것):</p> <p>테니스장 수용 인원의 30%를 할애하는 대신, ㉟ 아파트 단지 내의 여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p>	<p>•최초 요구:</p> <p>㉟아파트 주민들도 이용료를 내고테니스장을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용을 금지하는것은 부당하므로 공동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함.</p> <p>•조정 단계에서 제시한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여 ㉟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조금 더 지불 - ㉟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개방하는 대신 할애 비율 확대 <p>•최종 결과(얻은 것, 양보한 것):</p> <p>㉟ 아파트 단지 내의 여가 시설을 ㉞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대신, 테니스장의 원 의 30% 할애 받음</p>
협상에 대한나의 평가	

도형교·도형 (C1)

1. 그림은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및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맥락: 상황 맥락보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이 강하다.
- ②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다.
- ③ 메시지: 전언으로, 반·비언어적 메시지도 포함된다.
- ④ 반응: 발신자는 반응을 반영하여 자신의 의사소통을 점검·조정한다.
- ⑤ 대화 중에는 의사소통 주체들의 역할 교대가 일어난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회장: 지난 회의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학교 축제 때 자선 장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선 장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문화부장: 자선 장터의 성격상 봉사부에서 자선 장터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봉사부가 축제 때 딱히 하는 일도 없고요.

봉사부장: 아니, 자선 장터랑 우리 부가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몇 명 안 되는 부원들하고 어떻게 자선 장터를 진행해요?

총무부장: 저도 동의합니다.

학생회장: 어떤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총무부장: 아무래도 봉사부원들만으로는 자선 장터 진행이 버거울 것 같다고요.

체육부장: 자선 장터가 활성화하려면 특정 부서보다는 학생회 전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학급 차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부장: (불쑥 끼어들며) 우리 부서는 전시회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학급별로 자선 장터를 하자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학생회장: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언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육부장이 하려던 말을 마저 들어 봅시다.

체육부장: 학급별로 자선 장터를 실시하자는 뜻은 아니고, 무엇보다 자선 장터 물품들을 풍부하게 모으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를 각 학급에서 맡으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홍보부장: 좋은 의견이네요. 그러면 학생회의 일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열심히 홍보하여 자선 장터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체육부장: 전시회를 맡았으니 문화부는 배려해 주고, 저희 부와 총무부, 봉사부에서 자선 장터 물품 판매를 맡으면 되지 않을까요?

까요?

총무부장, 봉사부장: 좋습니다.

학생회장: 예, 의견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른 해보다 더욱 뜻깊은 학교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형교·도형 (C2)

2. 듣기·말하기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홍보부장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긍정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② 총무부장은 불분명한 동의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③ 체육부장은 행사의 핵심적인 사항 해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말하기를 하고 있다.
- ④ 봉사부장은 공식적인 회의에 반말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친근감을 표시하는 말하기이다.
- ⑤ 학생회장은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발언의 정확성을 위해 질문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도형교·도형 (C3)

3. ‘문화부장’의 의사소통 태도의 문제점을 쓰시오.

도형교·도형 (C4)

4. 다음은 할아버지와 소년의 대화이다.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듣기·말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 ② 할아버지의 말을 소년은 동음이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듣기 과정의 조정보다 말하기 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 ④ 할아버지는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⑤ 할아버지는 소년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의 말을 점검하고 있다.

▶▶▶▶▶ (2기)

5. 다음 ㉑, ㉒의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㉑는 말하기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있다.
- ② ㉑에서 화자는 상대방에게 위로하는 말하기를 필요했음을 깨닫고 있다.
- ③ ㉒는 말투와 표정을 고려하여 말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 ④ ㉒에서 청자가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점검하고 있다.
- ⑤ ㉒에서는 상황을 고려하여 말하기를 점검하고 조정하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 중 하나를 통해 협상의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

<상황>

㉑ 아파트와 ㉒ 아파트는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서로 자주 오간다. 그런데 최근 ㉑ 아파트 단지 내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㉒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㉑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작단계>

㉑ 아파트 대표: 최근 ㉒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이 늘면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불가피하게 ㉒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㉒ 아파트 대표: ㉑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이해합니다만, 저희 주민들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장이 항상 붐비는 것도 아니니 적절한 공동 이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조정단계>

㉑ 아파트 대표: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낮 시간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㉒ 아파트 주민들까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므로 ㉒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㉒ 아파트 대표: 저희 주민들도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평일 낮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은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처럼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여 저희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나올 듯합니다.

㉑ 아파트 대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어 요금 체계를 통한 수요 감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신 저희가 예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니,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의 20% 정도를 ㉒ 아파트 주민들께 할애(割愛)해 드리면 어떨까요?

㉒ 아파트 대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인원을 할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또 예약 제도가 시행되면 오래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저희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㉑ 아파트 주민들께 개방할 테니스 할애 비율을 좀 더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2기)

6. 밑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㉒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 증가에 따라 ㉑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겪게 된 점이 갈등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 ② ㉑ 아파트 대표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㉒ 아파트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③ ㉒ 아파트 대표는 ㉒ 아파트 주민들 역시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는데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 ④ ㉑ 아파트 대표는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 ㉒ 아파트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 ⑤ ㉒ 아파트 대표는 ㉑ 아파트 대표가 제시한 예약 제도와 수용 인원 할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할애 비율을 30%로 높이려 하고 있다.

▶▶▶▶▶ (2기)

7. 다음 질문에 대한 방안이나 근거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㉑ 아파트 대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가?
- ② ㉒ 아파트 대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가?
- ③ ㉒ 아파트 대표는 ㉑ 아파트 대표의 해결 방안에 반대하는 근거가 있는가?
- ④ ㉒ 아파트 대표는 ㉑ 아파트 대표의 인원 할애를 높일 방안이 있는가?
- ⑤ ㉒ 아파트 대표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㉑ 아파트 대표의 반대 근거는 명확한가?

【주제어지문·답안 (가선)】

8. 다음 그림의 듣기·말하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는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 ② ㉡는 제시한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는 화자의 발언에 청자가 공감하며 듣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 ④ ㉣는 적절한 비언어적·준어적 표현의 활용을 점검하고 있다.
- ⑤ ㉡와 ㉣는 듣기 과정을, ㉠와 ㉢는 말하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주제어지문·답안 (다선)】

9. <보기>에서 의사소통 태도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보기>

학생회장: 지난 회의에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학교 축제 때 자선 장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선 장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문화부장: 자선 장터의 성격상 봉사부에서 자선 장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시다.

봉사부장: 우리 봉사부원은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선 장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체육부장: 자선 장터가 활성화되려면 특정 부서보다는 학생회 전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학습 차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부장: 학급별로 자선 장터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학생회장: 미안하지만, 체육부장이 하려던 말을 마저 들어 봅시다.

【주제어지문·답안 (다선)】

10. <보기>의 협상 과정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상황: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서로 자주 오간다. 그런데 최근 A 아파트 단지 내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B 아파트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A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가) A 아파트 대표: 말씀하신 대로 평일 낮 시간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퇴근 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의 경우에는 B 아파트 주민들까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므로 B 아파트 주민들은 평일 낮 시간대에 한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B 아파트 대표: 저희 주민들도 대부분 퇴근 후나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평일 낮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은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처럼 요금 체계를 이원화하여 저희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나올 듯합니다.

(다) A 아파트 대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아파트 단지가 매우 인접해 있어 요금 체계를 통한 수요 감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신 저희가 예약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니, 혼잡한 시간대 최대 수용 인원의 20% 정도를 B 아파트 주민들께 할애(割愛)해 드리면 어떨까요?

(라) B 아파트 대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인원을 할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또 예약 제도가 시행되면 오래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장점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저희 아파트의 여가 시설을 A 아파트 주민들께 개방할 테니 할애 비율을 좀 더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 A 아파트 대표: 저희 주민들도 B 아파트 단지 내의 여가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니 좋습니다. 그럼 이를 고려하여 수용 인원의 30%까지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 B 아파트 대표: 예, 좋습니다. 저희 단지의 각종 여가 시설을 A 아파트 주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① (가)는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갈등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상대의 제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는 상대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 ④ (라)에서는 상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 ⑤ (마)와 (바)는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하며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마지막 절차이다.

4-2) 틀기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

1.② 2.⑤ 3.① 4.④ 5.③

5-1) 미완성의 결핍

1.⑤ 2.⑤ 3.필자-보는 이를 압도하는 무서움, 이하곤-겸양하는 풍모를 지닌 군자 4.① 5.⑤ 6.⑤ 7.③ 8.⑤ 9.귀, 목, 상체가 생략됨 / 당시의 미감과 거리가 멀 10.① 11.⑤ 12.② 13.① 14.③ 15.① 16.④ 17.⑤ 18.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19.③ 20.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21.④ 22.③ 23.③ 24.유탄의 특성 25.⑤ 26.③ 27.③ 28.⑤ 29.① 30.⑤ 31.④ 32.그림 속 인물이 윤두서가 맞을까?

5-2) 정책 토론의 유효성 방법

1.⑤ 2.(가): 가치 논제 (나): 정책 논제 3.⑤ 4.③ 5.③ 6.④ 7.⑤ 8.① 9.① 10.② 11.⑤ 12.③ 13.⑤ 14.찬성 1은 반대 측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며 공격하고 있다 15.④ 16.④ 17.① 18.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킴이, 설탕세를 부과해야한다. 19.④ 20.④ 21.④ 22.② 23. 보건 복지부의 건강 실태 조사 결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24.② 25.부작용이 큰 설탕세 부과는 불필요합니다. 26.⑤ 27.② 28.④ 29.④ 30.⑤ 31.② 32. 반대신문식토론, 반대1의 반박

5-3) 설득하는 글 쓰기

1.② 2.-개념정의-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한다. 3.(나)는 전문 기관의 통계 자료를 들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가)보다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높다 4.⑤ 5.① 6.⑤ 7.② 8.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9.⑤ 10.④

6-1) 그 사람의 손을 보던

1.③ 2.④ 3.대조적 이미지 사용, 동일한 시어나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4.② 5.가치가 있다 6.③ 7.④ 8.② 9.④ 10.① 11.뒀는 행위: 대상을 빛나게 함 / 화자의 태도: 예찬적인 태도 12.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보잘 것 없다고 여기는 것들 13.노다지, 꽃봉오리 14.②

15.④ 16.⑤ 17.④ 18.② 19.③ 20.㉠ 시어, 시구, 문장 구조 등 반복 ㉡ 주제를 부각함 21.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도 뒀는 행위를 통해 가치 있게 됨. 22.② 23.④ 24.⑤ 25.청소부는 뒀는 행위를 통해 대상을 빛이 나게 하기 때문에 성자라고 할 만하다. 26.⑤ 27.① 28.③ 29.④ 30. 31.㉡은 빛을 내서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을, ㉢은 성찰을 의미함. 32.① 33.⑤ 34.㉡ 빛 ㉢ 가치 35.③ 36.③ 37.① 38.② 39.㉡ 외적 관점 ㉢ 내재적 관점 40.② 41.⑤

6-1) 열미의 만남 2

1.④ 2.④ 3.③ 4.③ 5.③ 6.④ 7.② 8.③ 9.② 10.①⑤ 11.⑤ 12.③ 13.③ 14.④ 15.④ 16. ㉠저승사자, ㉡군관, ㉢아들 17.③ 18.⑤ 19.② 20.⑤ 21.④ 22.④ 23.① 24.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5.④ 26.② 27.㉡: 남북 분단에 따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 ㉢: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 28.과거의 아들이 어머니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그 일을 현재 환각으로 겪게 됨. 29.⑤ 30.③ 31.④ 32.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33.④ 34.② 35.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임. 36.② 37.③ 38.③ 39.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40.⑤ 41.②

6-2) 세 함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1.② 2.① 3.③ 4.⑤ 5.별에 대한 지식을 쌓음, 천체 사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됨. 6.①④ 7.②④⑤

7-1) 향기와 시골

1.④ 2.④ 3.② 4.⑤ 5.③ 6.공통점: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 (다)에 비해 <보기>의 중장이 많이 길다. 7.화자와 누이가 재회할 공간 /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 8.⑤ 9.① 10.④ 11.미타찰 12.관이 내렸다 13.④ 14.① 15.⑤ 16.① 17.⑤ 18.④ 19.② 20.④ 21.③ 22.① 23.⑤ 24.② 25.10구체 향가의 4.4.2구조는 시조에서 초.중.종장으로 계승 / 향가의 낙구 감탄사는 종장 첫 3음절로 계승 26.④ 27.⑤ 28.③ 29.⑤ 30.① 31.② 32.① 33.과장, 열거 34.③ 35.④ 36.① 37.③ 38.⑤ 39.④ 40.② 41.안빈낙도 42.님과 오래 있고 싶음 43.② 44.(1) 개, 닭 (2)해학 45.

- ④ 46.④ 47.③ 48.② 49.공통점: 사랑하는 입을 그리
 워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처지 / 차이점: 3장(초.중.중
 장) 구조로 종장에서 주제를 집약함 50.③ 51.① 52.
 ① 53.⑤ 54.④ 55.㉠:10 ㉡:낙구 ㉢: 고려 ㉣: 3음절
 56.② 57.④ 58.③ 59.⑤ 60.④ 61.⑤ 62.③ 63.④ 64.
 ② 65.① 66.① 67.⑤ 68.낙구가 감탄사로 표현됨

7-① 관공제

- 1.② 2.① 3.⑤ 4.④ 5.혈벗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겠
 다. 6.⑤ 7.③ 8.⑤ 9.고사를 불러 10.㉡: 4음보, ㉢: 중
 장 ㉣: 3음절 11.왕명, 선인 12.진선, 근심할 일은 먼
 저 하고 즐거워 할 일은 나중에 함. 13.선우후락 14.
 ④ 15.③ 16.① 17.④ 18.⑤ 19.③ 20.②④ 21.③ 22.
 ⑤ 23.② 24.① 25.② 26.④ 27.① 28.③ 29.⑤ 30.①
 31.③ 32.④ 33.④ 34.⑤ 35.② 36.①② 37.⑤ 38.①
 39.④ 40.⑤ 41.①② 42.연군지정(戀君之情) -(㉠
) 인생무상(人生無常) -(㉡) 우국지정(憂國
 之情)-(㉢) 선정(善政)에의 포부 -(㉣
) 신선(神仙) 사상 -(㉤) 43.③ 44.④ 45.⑤
 46.① 47.③ 48.천년된 늙은 용 / 바람과 구름 / 삼일
 동안 내리는 비 / 천년된 늙은 용이 바람과 구름을
 얻어 3일동안 비를 내리게 함. 49.② 50.④ 51.③ 52.
 ⑤ 53.⑤ 54.⑤ 55.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한
 탄함 56.③ 57.① 58.② 59.② 60.④ 61.④ 62.예 사흘
 머문 후, 스션 63.③ 64.③ 65.④

7-② 유자소신

- 1.② 2.⑤ 3.④ 4.① 5.언어유희, 웃음 6.② 7.④ 8.⑤
 9.④ 10.⑤ 11.③ 12.④ 13.④ 14.① 15.⑤ 16.④ 17.③
 18.② 19.④ 20.② 21.④ 22.언어 유희, 웃음 유발 23.
 ④ 24.② 25.⑤ 26.④ 27.③ 28.⑤ 29.② 30.㉠: 주변
 머리 없이~끼치는 자 ㉡: 분수없이 남을~으스대는
 자 ㉢: 어딘지 뗏뗏지~못하는 자 31.④ 32.⑤ 33.⑤
 34.⑤ 35.① 36.③ 37.⑤ 38.④ 39.1) 사치롭고 허영심
 이 강함 2) 의뭉스러움 3) 허영과 위선을 경계하고
 사람을 중요시 함 40.① 41.③ 42.② 43.③ 44.1)생명
 순환론적 인식 2) 사과와 나와의 일체, 역설법

8-① 국어의 법칙

- 1.⑤ 2.④ 3.① 4.⑤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①
 12.⑤ 13.① 14.③ 15.⑤ 16.'爲嬴'에서 보듯이 중
 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

는 '위하여'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東國
 語'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
 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홍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
 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
 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
 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
 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
 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차, 스
 뚝',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미 축소는 '말씀,
 놈'이 그 예이다. 20.③ 21.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② 23.③ 24.③
 25.③ 26.② 27.㉠, ㉡, ㉢, ㉣, ㉤, ㉥ 28.③ 29.④ 30.
 ③ 31.⑤ 32.①③ 33.① 34.⑤ 35.공통적으로 설명한
 문법 원리는 모음조화이다. 모음조화는 'ㅏ, ㅑ, ㅓ'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ㅗ' 따위
 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36.⑤ 37.④ 38.② 39.② 40.① 41.③ 42.⑤ 43.② 44.
 ㅃㅅㅌ 45.④ 46.(1) ㉠ 소리 나는 대로, ㉡ 어법에 맞
 게 (2) ㉠ 말씀, 놈 ㉡ 축소 47.④ 48.③ 49.④ 50.④
 51.⑤ 52.① 53.④ 54.② 55.③ 56.⑤ 57.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실용 정신 58.훈민정음에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니 우리 것이 필요하다는 '자주정
 신',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든
 '창조정신',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쓰기에 편하게 만들
 고자 했던 '실용정신'이 나타난다. 59.8종성법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60.초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ㄱ,
 ㄴ, ㄷ, ㅅ, ㅇ'을 만들었고, 가획의 원리에 의해 'ㅋ,
 ㅇ, ㄸ, ㅌ, ㅍ, ㅈ, ㅊ, ㅎ, ㄷ, ㅌ, ㅍ, ㅊ'를 만들었다.
 중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ㅊ'를
 만들었고, 합성의 원리에 의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ㅠ, ㅛ, ㅜ, ㅠ, ㅠ'를
 만들었다. 중성은 중성부용초성에 의해 중성의 글자
 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했다. 61.밍?노니 : 밉글- + -ㄴ- + -오- + -니
 62.③ 63.① 64.④ 65.② 66.① 67.④ 68.② 69.꽃 좋
 고 열매 많으니 70.㉠: 시미 ㉡: 불휘

9-① 현대국어의 언어학

- 1.① 2.④ 3.(1) 문화 자산, (2) 인구 자산 4.⑤ 5.① 6.
 ③ 7.경제 자산, 인구 자산 8.② 9.⑤ 10.⑤ 11.③ 12.

③⑤ 13.⑤ 14.⑤ 15.② 16.⑤ 17.④ 18.⑤

9-2) 답과 답순과 의사소통 문제

1.① 2.④ 3.⑤ 4.(1) 일치하는 것 : (가), (다), (라) (2) 그렇지 않은 것 : (나), (마) 5.③ 6.⑤ 7.① 8.① 9. 일치하는 것: 2,3,5 일치하지 않는 것: 1,4 10.② 11.① 12.③ 13.② 14.⑤ 15.② 16.② 17.③ 18.④ 19.⑤ 20. ⑤ 21.⑤ 22.② 23.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로지르는 것

9-1) 소유관 문제

1.① 2.② 3.④ 4.③ 5.테니스: 소유 양식의 모습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함 / 괴테: 존재 양식의 모습으로 생명을 중시함 6.④ 7.② 8.① 9.④ 10.<보기>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내므로 자신을 자연과 일치시키는 (나)가 가장 유사함. 11.② 12.① 13.㉠: 외부 ㉡: 의존 ㉢: 감소 ㉣: 실천 ㉤: 성장 14.③ 15. 존재 양식

9-2) 일치하는 의사소통

1.① 2.④ 3.상대를 무시하거나 말을 끊는 태도는 문제가 있음. 4.① 5.④ 6.⑤ 7.⑤ 8.③ 9.문화부장은 상대의 말을 끊어 버렸음. 10.③ 11.② 12.① 13.③ 14.③ 15.③ 16.③ 17.⑤ 18.② 19.② 20.1) 얻은 것: 수용 인원 30% 할애 2) 대가로 제공한 것: 각종 여가 시설을 ㉦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는 것 21.시작: A, B 조정: C~F, 해결: G, H 22.④ 23.㉦ 시작 ㉧ 조정 ㉨ 해결 24.⑤ 25.② 26.④ 27.④

10-1) 타당성 평가 문제

1.⑤ 2.②⑤ 3.① 4.⑤ 5.매체에는 필자의 특정 관점이 들어 있을 수 있다. 6.⑤ 7.(1) 타당성 평가: 69세까지 누구나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2) 공정성 평가: '엄마'만 언급한 것은 양육을 '엄마'의 것으로만 보는 등의 성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8. ⑤ 9.⑤ 10.① 11.④ 12.높 13.성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14.① 15.⑤ 16.④ 17.② 18.객관적 근거 없이 자외선을 100% 완벽하게 차단해 준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음. 19.성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공정하지 못함. 20.⑤ 21.③ 22.① 23.비유적 표현, 저성장의 심각성을 인상적으로 드러냄 24.① 25. ④

10-2) 논쟁의 형식

1.① 2.④ 3.⑤ 4.③ 5.③ 6.⑤ 7.③ 8.① 9.④ 10.'졸업

한 선배들도'은 독자(재학생)와 맞지 않기에 삭제함.

- 끝 -

6-1 미완성의 골짜기

1.⑤

▶ 대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결 과정을 밝히는 것이지만 대상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밝히는 건 아님.

▶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빈출 비유법 (★★★)

1)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 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 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 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 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 (빵: 음식, 먹거리)

7) 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8) 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엇금엇금, 슬금슬금)

2.⑤

▶ ⑤는 단순히 책의 내용을 알게 되는 수동적인 독서지만 나머지는 능동적인 독서 행위임.

▶ **넣어둬, 패턴 공략** ◀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이상 ↔ 현실

4.①

▶ 자화상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없음.

② 몸이 유탄으로 그려졌기 때문 ③ 효경을 근거로 함.

④ 몸 부분이 선명히 그려짐 ⑤ 미켈란젤로의 노예상

5.⑤

▶ 작가의 심오한 상념이나 성찰의 흔적을 말하는 [A]와 창작 과정에서의 고뇌와 갈등을 말하는 제시문을 참고하면 ⑤가 가장 적절함.

6.⑤

▶ 찬문의 내용과 다른 자화상의 모습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이지만 자화상의 원래 모습은 동일함.

7.③

① ⑤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 평가>와 관련됨.

② ④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와 관련됨.

8.⑤

▶ 미완성 속에서 예술가의 고뇌나 내적 갈등을 통해 예술가의 정신이 드러나기에 ⑤가 가장 적절함.

▶ **옳다, 1등급 조언** ◀

발문(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에 '가장(!) 적절한 것'이 있다면, 선지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보자. 정답 같은 선지가 있고 더 정답 같은 선지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더 정답 같은 선지를 고르고 덜 정답 같은 선지는 과감히 버려라!

11.⑤

▶ ㉠에서 몸체의 도가 채색된 건 아님.

12.②

▶ 위 글은 예술 비평문으로 필자의 체험이나 상상에 공감하는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읽기>가 적절함.

①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읽기>는 기사문, 학습서, 안내문 읽기에 적합. ③ 주장의 타당성과 근거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 건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읽기>와 관련됨. ④ ⑤ <내용이나 주장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읽기>는 사설, 논문, 광고 읽기와 관련됨.

13.①

② 후대의 외부 작용은 없음. ③ ㉠도 미완성작임. ④ ㉠도 미완성 상태에서도 예술적 완전성을 감지할 수 있음. ⑤ ㉠과 ㉡은 모두 미완성작임.

14.③

▶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음.

16.④

▶ ㉠의 서술과 ④에는 묘사가 사용됨.

① 결과+원인 ② 정의 ③ 원리 ⑤ 인용

▶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묘사 (★★★)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19.③

▶ 얼굴엔 먹선을 올렸으나 몸체엔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 것임.

22.③

▶ ㉠: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27.③

▶ (다): 전체의 일부가 생략된 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닌,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함.

5(2) 장문 그늘의 합리의 방법

1.⑤ 토론의 주제로 해결 방안이 드러나는 건 아님.

▶응, 헛갈리지 마!◀

토의 vs 토론 (★)

ㄱ.토론: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확실한 대립점**이 있는 논제 이어야한다. -교복 착용의 의무화해야 하는가?
-동성간의 결혼 합법화 필요한가?

ㄴ.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협력적** 논의이다.
-불우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취업난을 해결할 정책은 무엇인가?

3.⑤

▶박쥐도 날개와 털이 있고 향은 동물이지만 알을 낳지 않기 ⑤가 가장 적절함.

▶옳다, 1등급 조언◀

발문(문제에서 물어보는 말)에 '가장(!) 적절한 것'이 있다면, 선지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보자. 정답 같은 선지가 있고 더 정답 같은 선지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더 정답 같은 선지를 고르고 덜 정답 같은 선지는 과감히 버려라!

4.③

① 우연의 오류: 여러 경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화하지 않고, 일부의 제한된 경우들만을 주목하여 그것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모든 경우들이 다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오류. (예) 네가 제일 잘하는 국어 시험을 못 봤다고? 그럼, 다른 과목은 물어 보나마나겠네.

② 논점 이탈의 오류: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을 벗어나 논점과 관련성이 없는 주장을 하는 오류. (예) 갑 : 어제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학교에 갔어. 을 : 맞아. 비가 왔으니까 올해 벼농사 참 잘될거야.

③ 순환 논증의 오류: 논증의 결론 자체를 전제의 일부로 사용하는 오류.

④ 흑백 사고의 오류: 이 세상 모든 일을 흑백 이분법으로 보려는 사고의 오류. (예)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수프가 너무 차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당신은 그것을 펄펄 끓여오면 좋아하겠군요.'

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논쟁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

5.③

▶토론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제도나 정책을 변화하려는 찬성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

6.④

▶찬성 측은 입증 책임 있기에 필수 쟁점을 언급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안이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입증 책임은 찬성 측에 있음.
③ 논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함.
⑤ 가치 판단이 배제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건 논제 임.

7.⑤

▶반대 측은 비용이 효과 및 이익보다 크다고 주장해야 함.

11.⑤

▶설탕세는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함.

13.⑤

▶특정한 조치가 아닌, 권고로 해결할 것을 말함.

15.④

▶이익보다 비용이 작아야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 (★)

- ㄱ.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상식적)
- ㄷ.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16.④

▶ㄷ과 ㄹ이 <보기>에서 제시한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가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피려는 것과 관련됨.

17.①

▶논증의 요소에는 주장, 이유, 근거가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사례 vs 예시 (★)

ㄱ.사례(실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예시: 예를 들어 보임.
사례와 예시를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하나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기에 꼭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④

▶윗글의 논제 유형은 정책 명제로 ④가 이에 해당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논제의 종류 (★★)

ㄱ.사실논제: 증거를 통해 논리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한 논제.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ㄴ.가치논제: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수용할 만하

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논제.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중요하다.”)

ㄷ. 정책논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논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0.④

▶ ‘찬성1’ 토론자는 상대방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히는 건 없음.

21.④

▶ ④: 설당세는 현재 제품마다 표시하고 있는 당 함유량에 따라 그램당 기준을 정하여 부과하면 되므로 과세 기준 마련이 용이함.

24.②

▶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를 통해 알 수 있음.

26.⑤

▶ 해결 방안의 논리적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자 함.

27.②

▶ 이유 없이 주장(과도한 당 섭취로~증가하고 있습니다)과 근거(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연구에 의하면~차지합니다)로만 구성됨.

28.④

▶ 반대1의 입론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은 찬성1이 말했음.

30.⑤

▶ 찬반 양측의 입장이 나뉘고 대립하는 지점은 ‘문제’, ‘해결방안’, ‘이익/비용’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음.

9-1) 그 사람의 손을 보민

1.③

▶ 청소부를 예찬하는 것처럼 ③에선 산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있음.

◆주제 저장소◆

- ① <만종(晩鐘)>: 고단한 현실 속에 담긴 소박한 꿈
- ② <하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 ③ <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 ④ <귀뚜라미>: 부정적 현실에 굴하지 않는 의지와 그 소통의 가능성
- ⑤ <단오>: 아내에 대한 진솔한 사랑

2.④

▶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인간 삶의 밝은 측면을 짚고 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4.②

▶ ②는 내재적, 나머진 외재적 관점의 감상임.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작품 감상의 관점 (★)

ㄱ. 내재적 관점: 작품 자체에 사용된 다양한 문학적 서술 방식을 통해 감상.(절대론적)

ㄴ. 외적 관점: 사회문화(반영론적), 독자(효용론적), 작가(표현론적)와 관련지어 감상.

6.③

▶ ‘~보면’, ‘~빛이 난다’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여 전달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